

이동검진차, 북한에 가다

개성공업지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

북녘 땅에서 DR 흥부엑스선 결핵검진을 하다

글_김영란(대한결핵협회 사업관리팀장)

1

“김정일 수령 동지께서 각각의 작업장에 의사를 할당해주고 의약품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넉넉합니다.”

북측 대표의 인사말 대신 건넨 답에 우리 일행 모두는 뭔가를 잘못된 사람들처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어지는 불만의 소리와 함께 서로의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기대하며 왔던 곳인지 의심스러웠다. 남측 출입경사무소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1시간이나 연기되면서도 불평 한 번 없이 달려온 이들은 마치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는 듯 험한 마음을 달래야 했다.

지난 6월 24일 김성규 대한결핵협회장과 그린닥터스의 이윤구 개성협력병원장과 정근 상임공동대표, 필자 등 20여 명의 회원이 개성 남북협력병원·인민병원에 지원할 4억 여 원 어치에 해당하는 응급의약품을 지원하고 종합병원을 설립코자 마련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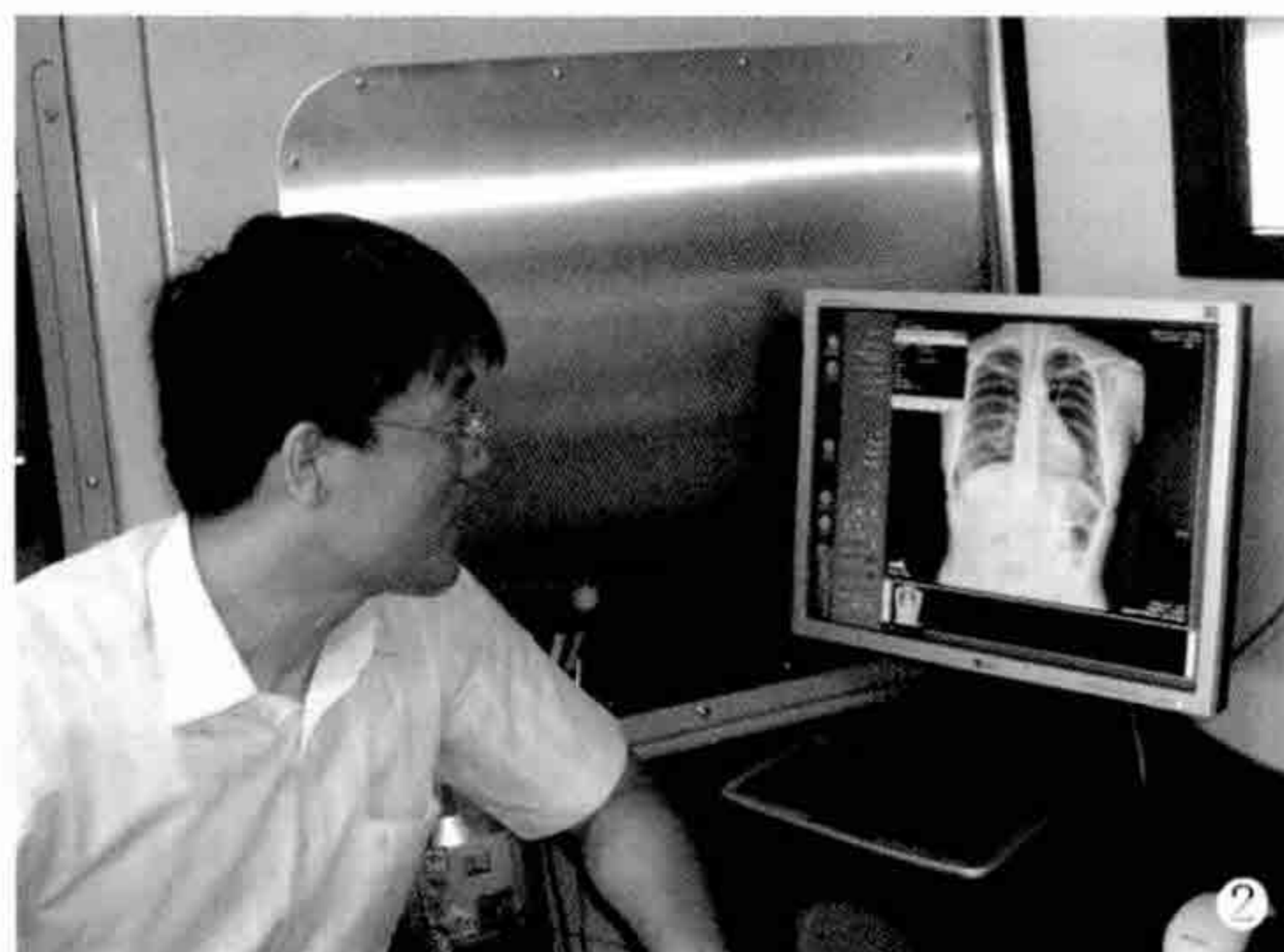
들뜬 기대가 무너지는 했지만 일행 모두는 인내하며 북측을 위로하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며 진땀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시종일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모습에서 한반도에 상반된 두 개의 코리아가 상존한다는 것을 현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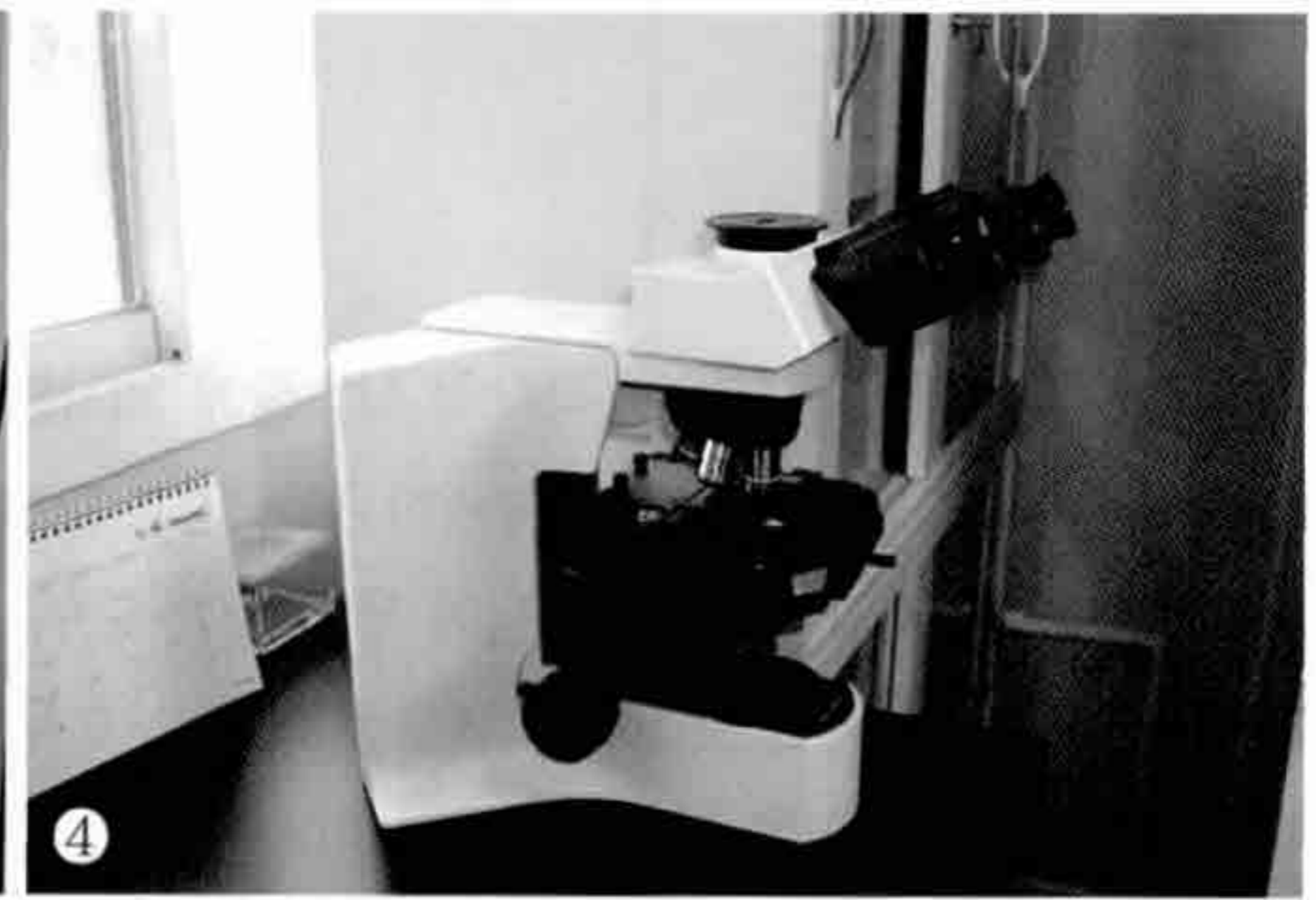
8월 12일, 13일에 양일간은 우리협회가 DR(Digital Radiology ; 디지털의료영상장치) 흉부엑스선 결핵검진 이동차량을 타고 북녘 땅을 밟으며,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근로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북측 의사들에게 시연을 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는 고계인 본회 사무총장, 박승욱 행정총괄국장, 정일주 서울지부 건강증진팀장, 송용욱 검진반장, 이준영 팀원과 그동안 개성남북협력병원의 진료를 위해 바쁜 일과 중에서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시간과 자비량으로 물자를 아낌없이 지원해 온 김희진 결핵연구원 역학부장과 필자가 함께 했다.

① 개성공업지구 그린닥터스 협력병원 앞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부터 우리협회 송용욱 검진반장, 박승욱 행정총괄국장, 김희진 결핵연구원 역학부장, 이준영 님, 그린닥터스 이승원 진료부원장, 임세영 진료원장, 정일주 우리협회 서울지부 건강증진팀장, 고계인 사무총장, 필자, 그리고 그린닥터스 표동철 진료부원장.

② DR 장비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즉석에서 판독하고 있는 김희진 결핵연구원 역학부장.





③, ④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내에 설치된 결핵균 검사시설.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북한의 결핵상황은 남한의 70년대 정도의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대한결핵협회는 2003년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기 전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부와 함께 결핵예방제제인 BCG백신 20~30만 명분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2007년도에는 그린닥터스 개성남북협력 병원 내 결핵균 및 혈액검사실을 개설하여 우리협회 결핵연구원 류우진 원장, 김희진, 김창기 부장과 박영길, 최용운, 주영태 팀장 등 의료진과 연구·기술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담당해오고 있으며 북측의사에게 결핵균 검사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개성 남북협력병원 내 결핵균 검사실 설립은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가 컸다.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에 있어 우리협회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유진벨 재단이나 나눔인터내셔널과 같은 외부 북한지원단체에 의지해 왔다. 우리협회가 인천항 부두에서 물품을 실은 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에 비해 다른 단체들의 북녘 땅 현지에서의 활동상 등이 보고될 때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곤 했다. 그랬기에 북녘 땅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결핵관리는 국내외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순수 민간단체인 우리협회와 정부의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관리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핵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며 정확한 검진을 통해 치료해야 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최근 들어 몇년 간 많은 민간단체가 북한 결핵환자돕기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관리가 아닌 주로 결핵약 지원이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치료여서 결핵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우려되는 것이 아니었다. 관리가 없는 결핵치료는 아예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내성환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관리체계가 갖추어져도 완치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마당에,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빠진 단순 지원이 오히려 북녘 땅을 더욱 멍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북측에서 지난 해에 세계보건기구에 결핵 2차 약을 지원 요청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이는 이미 북한에 내성환자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지원사업도 이제는 뜨거운 가슴에 냉정한 이성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본회의 북한 결핵지원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져왔으나, 북한의 결핵이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충분히 인식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지원을 하고자 한다.

이날 검진에는 남측 진료소 임세영 원장의 지휘로 남측근로자와 북측 의사 몇 명을 포함하여 90여 명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였고 촬영과 동시에 판독이 이루어져 활동성 미정 2명에게 추후 검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에서는 북측 진료소를 견학하고 진료소장과 그간의 현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북에 들어올 때 더운 공기를 감지한 고계인 사무총장께서 선뜻 선풍기 4대와 응급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남북협력 진료체계를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신언상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개성공단에는 3만 여 명의 북측근로자가 60여 개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연말에는 6만 명, 2010년에는 1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런데 근로자의 10% 정도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며, 이중 결핵환자도 다수”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측에 “왜 아직도 결핵이 많은가”라고 묻는 대목에서 앞으로 개성 남북협력병원과 우리 협회의 결핵퇴치를 위한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출경이다.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한반도에 결핵 없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일행의 수심(愁心)만큼, 임진강의 수심(水深)도 차오르고 있었다. †



⑤ 북한의료진과의 기념촬영



⑥ DR 장비가 장착된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 북측의 요구로 검진차량에 그려진 북십자마크는 출발전 종이와 테이프로 가려지는 공사(?)를 감행해야 했다.